

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## 이슈브리프

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

‘틱톡(TikTok)’ 열풍의 3가지 의미와 시사점

## 국제금융시장

## 북한포커스

최근 북한 소매상업의 현황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# 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## 이슈브리프

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 .....	1
‘틱톡(TikTok)’ 열풍의 3가지 의미와 시사점 .....	4

국제금융시장 .....	7
--------------	---

## 북한포커스

최근 북한 소매상업의 현황 .....	11
----------------------	----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.....	13
--------------------	----



#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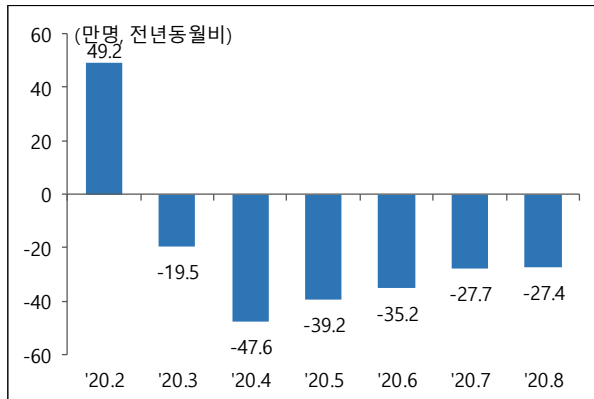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이재준 (june97@kdb.co.kr)

- ◆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취업자 수가 지난 4월을 저점으로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나, 일시휴직자·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, 청년층 고용률 하락 등 고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
- ◆ 고용유지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이 필요

## □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'20.3~4월 크게 감소, 이후 8월까지 감소폭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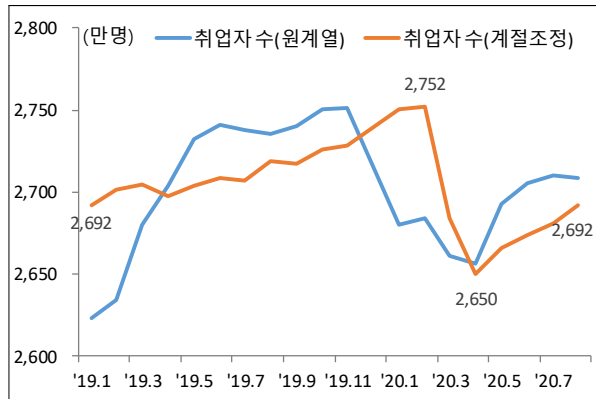
-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'20.3~4월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, 이후 8월까지 감소세 소폭 완화
-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4월 47.6만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8월 27.4만명 감소로 점차 감소폭 축소
- 계절효과를 제거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를 보더라도 3~4월 감소 이후 8월까지 완만히 증가 중이나 여전히 '19년말 수준에는 미달

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 증감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취업자 수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- '08년 금융위기 당시\*와 비교하여 계절조정 취업자 수 감소폭을 보면, 최근 코로나19의 영향('20.8월 취업자 수가 2월 대비 60만명 감소)이 큼

\* 금융위기가 '08.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으로 본격화되었으나, 한국의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'08.11월(2,379만명)까지 증가하였으며, 이후 '09.5월(2,354만명)까지 6개월간 25만명 감소

- 한편, 8월 고용통계 조사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어서\* 9월에는 취업자 수 등 고용상황 다소 악화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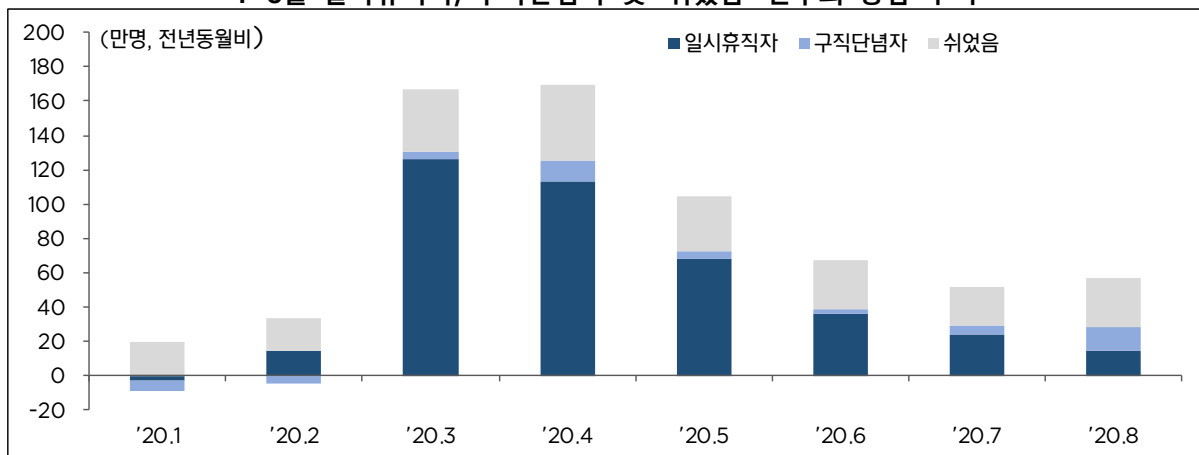
\* (8월 고용동향 조사주간) 8.9~15일, (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) 8.16일 2단계로 격상, 8.30일 강화된 2단계 시행, 9.14일 2단계로 완화, (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) 8.23일 2단계로 격상

□ 일시휴직자·비경제활동인구 증가, 청년층 고용률 하락 등으로 고용회복 지연

- 통계상 취업자\*로 분류되나 내용상 실업자라 할 수 있는 '일시휴직자'가 '20.8월 전년동월대비 14.3만명 증가한 84.6만명으로, 잠재적 일자리 불안계층이 증가

\* ① 임금근로자(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) + ② 비임금근로자(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) + ③ 일시휴직자(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, 연가, 교육,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자)

1~8월 일시휴직자, 구직단념자 및 '쉬었음' 인구의 증감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- 또한, 실업률 계산\*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\*\*의 증가로, 8월 취업자 수 감소폭(△27.4만명)에 비해 실업자 수 증가는 소폭(+0.6만명)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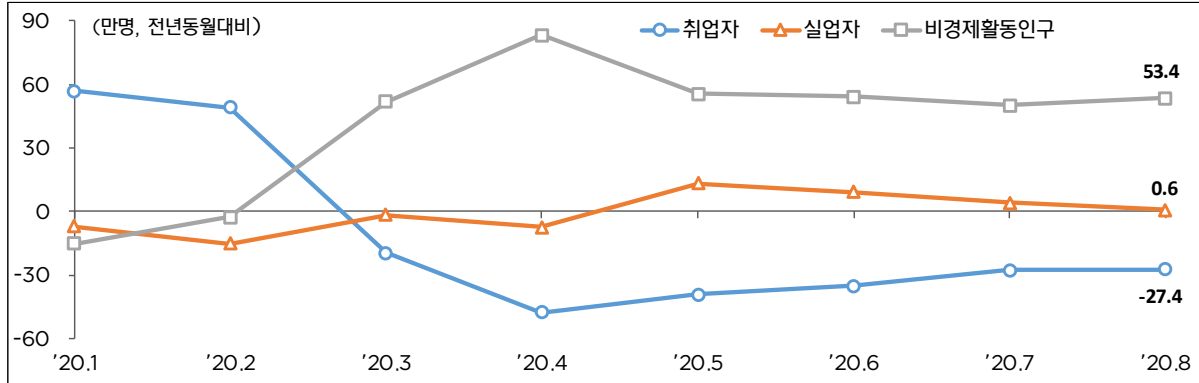
\* 실업률(%) = (실업자 ÷ 경제활동인구) × 100

\*\* 만 15세 이상의 노동가능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로, 가정주부, 학생, 연로자와 심신장애자,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됨

- 이중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은 '쉬었음'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9만명 증가한 246.2만명, '구직단념자'\*는 13.9만명 증가한 68.2만명으로, 실업 상태가 만성화될 소지가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

\*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,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

1~8월 취업자 수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- 한편,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20대 청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이 지속
  - 8월 20대 취업자 수\*는 전년동월대비 13.9만명 감소하였고, 20대 실업률\*\*은 7.7%로 전체 실업률(3.1%)의 두 배 이상
    - \* 20대 취업자 증감(만명) : ('20.2) △2.5 (3) △17.6 (4) △15.9 (5) △13.4 (6) △15.1 (7) △16.5 (8) △13.9
    - \*\* 전체 실업률(%) : ('20.2) 4.1 (3) 4.2 (4) 4.2 (5) 4.5 (6) 4.3 (7) 4.0 (8) 3.1
    - 20대 실업률(%) : ('20.2) 9.0 (3) 9.7 (4) 9.1 (5) 10.3 (6) 11.0 (7) 9.7 (8) 7.7
  - 8월 20대 고용률(56.4%)은 전년동월대비 2.2%p 하락하며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
    - \* 고용률 증감(%p) : (20대) △2.2 (30대) △1.6 (40대) △1.7 (50대) △0.8 (60대 이상) +0.9

□ 현재 진행 중인 고용유지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,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 필요

- 지속적인 고용유지 정책으로 고용시장 충격 완화에 주력
  - 고용유지지원금 지원,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 현재의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
-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 지원 지속
  - 코로나19 여파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\* 등을 활용하는 한편, 유망 성장동력산업 발전 촉진과 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 등 일자리 수를 늘리도록 유도
    - \* 정부가 '20.7.14일 발표한 정책으로, 디지털뉴딜, 그린뉴딜, 안전망 강화를 큰 축으로 하여 '22년까지 88만개, '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
  - 단순·한시적 일자리를 넘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,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지속 추진

# ‘틱톡(TikTok)’ 열풍의 3가지 의미와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 
 조윤정 (yunjeong.cho@kdb.co.kr)

- ◆ 최근 중국 틱톡 열풍은 숏폼동영상의 각광, 장기간 1위였던 우버를 제친 세계 최대 기업 가치의 유니콘, 美·中 패권다툼의 디지털 영역 확장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보유
- ◆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의 세계 IT 시장 영향력 확대와 美·中 패권다툼의 파급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, 세계적 트렌드에 동승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창업·투자 촉진 필요

□ (대세는 숏폼동영상\*) 중국의 틱톡은 글로벌 1위 숏폼동영상 플랫폼으로, 출시 3년만에 글로벌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 6위, '20.상반기 앱다운로드 1위 등 달성

\* 말 그대로 짧은 길이의 간결한 동영상을 의미, 짧게는 15초 이내부터 10분 이내까지 다양

- 최근 Z세대('90년대 중반~'0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)를 포함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숏폼동영상이 큰 인기를 구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수 급증
- 중국의 틱톡은 출시 3년만에 글로벌 숏폼동영상 플랫폼 1위 및 소셜미디어 6위 달성, 다수의 글로벌 매체가 '20년은 '틱톡의 해'로 명명할 정도로 각계가 주목
  - 틱톡은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전송을 위한 인공지능이 핵심기술이며, 과감한 M&A와 해외진출, 사업 다변화 등이 빠른 성장의 요인
  - 유튜브 등 글로벌 1~6위 소셜미디어들이 1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것과 달리, 틱톡은 출시 3년 만에 순위권에 진입해 '20.상반기 앱다운로드 1위 등 달성
  - 페이스북, 구글 등도 숏폼동영상 관련 서비스 출시했으나 시장 장악력은 미미

글로벌 소셜미디어 순위

순위	소셜미디어	출시	월 사용자 수(억명)	순위	소셜미디어	출시	월 사용자 수(억명)
1	페이스북(美)	'04.2	26	5	인스타그램(美)	'10.10	11
2	왓츠앱(美)	'09.5	20	6	틱톡(中)	'16.9	8
3	유튜브(美)	'05.4	20	7	QQ(中)	'99.2	7
4	위챗(中)	'11.1	12	8	웨이보(中)	'09.8	6

주 : 페이스북의 별도 메세징서비스인 '페이스북메신저(월 사용자 수 : 13억명)'는 순위에서 제외  
 자료 : Statista, eMarketer, CNET, Business of Apps, Visualcapitalist

□ (우버\*를 제친 글로벌 1위 유니콘)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(ByteDance)는 막대한 투자유치에 힘입어 5년여간 1위였던 우버를 제치고 '18.11월 유니콘 1위에 등극

\* 우버는 '19.5월 상장으로 글로벌 유니콘(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) 목록에서 제외

- 바이트댄스의 기업가치는 '20.9월 1,400억달러로 2위 디디추싱(중국의 차량공유 기업, 기업가치 560억달러) 등 타 유니콘들과 격차가 커 당분간 1위 수성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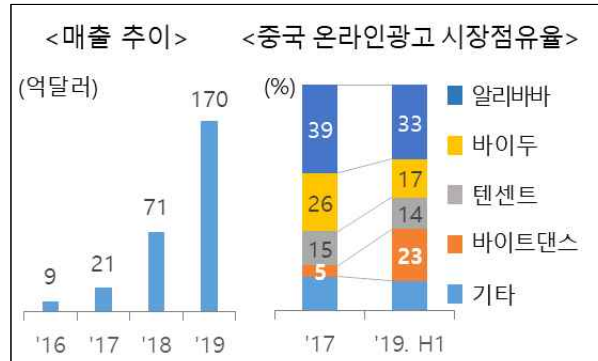
- 바이트댄스는 창립 이후 세콰이어캐피탈, 소프트뱅크, 골드만삭스, 중국은행 등 국내외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차례의 자금 조달에 성공
- 플랫폼 인지도 상승과 함께, 대부분 적자를 기록 중인 타 유니콘 기업들과 달리 '19년 매출 170억달러, 순이익률 17.6% 등 견조한 실적도 지속적 투자유치 요인
  - 동사의 주 수익원은 광고로, '19.상반기 중국 온라인광고 시장점유율 2위로 성장

글로벌 유니콘 순위

순위	기업 (국적)	기업가치 (십억달러)	주요 사업
1	바이트댄스(中)	140	콘텐츠플랫폼
2	디디추싱(中)	56	차량공유
3	스페이스엑스(美)	46	항공우주 장비
4	스트라이프(美)	36	핀테크
5	팔란티어(美)	20	빅데이터 분석
6	에어비앤비(美)	18	숙박공유
7	콰이쇼우(中)	18	콘텐츠플랫폼
8	에픽게임즈(美)	17	게임

자료 : CBInsights('20.9)

틱톡의 주요 영업실적



자료 : 바이트댄스, R3

□ (美·中 패권다툼의 영역 확장) 최근 미국 내 틱톡 사용 제한 등 美·中 패권다툼이 디지털 분야로 확장된 가운데, 美 기업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사업부문 인수 발표

- 글로벌 디지털 분야는 미국 기업들이 주도해 온 가운데, 틱톡이 미국을 포함한 중국 외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은 '유리천장'을 깬 유의미한 사례
  - 틱톡은 약 160개국에서 사용 중으로, 중국 외 국가의 앱 다운로드 비중이 90%이며 이 중 인도와 미국이 각각 30%, 8% 점유('20.4월 기준, Sensor Tower)
  - 미국의 틱톡 사용자는 '18.1월 1,126만명에서 '20.8월 약 1억명으로 8배 이상 증가('20.8월, 틱톡 공시자료)
- 그동안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을 제재해 온 미국 정부는 '20.8월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
- 이후 오라클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틱톡의 보안 문제 해결 및 자사의 콘텐츠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틱톡 미국 사업부문 인수를 추진
  - 마이크로소프트, 트위터 등도 인수전에 참여했으며,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'20.9.19일 오라클·월마트 공동의 틱톡 미국 사업부문 지분 인수안을 승인

- 한편 중국은 '20.8.30일 해외수출 시 정부승인을 받는 첨단기술 목록에 틱톡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미국의 압박 견제 - 이에 따라 틱톡의 미국 사업부문 매각 시 중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어, 중국 정부의 결정이 틱톡 인수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

**□ (시사점) 중국의 세계 IT 시장 영향력 확대와 美·中 패권다툼의 국내 산업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, 세계적 트렌드에 동승해 인공지능 분야 창업·투자 촉진 필요**

-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IT 서비스를 둘러싼 각국의 대응방안을 모니터링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비할 필요
  - 중국 IT 산업의 세계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, 국경의 장벽이 없는 기술 특성 상 향후에도 중국 IT 서비스의 한국을 포함한 해외진출 가속화 예상
  - 美·中 무역분쟁, 홍콩 국가보안법 논란 등 최근 국제정치적 화두가 글로벌 밸류체인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최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

- 국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창업 및 벤처투자 촉진 필요
  - 국내 인공지능 분야 창업과 벤처투자는 해외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, 한류 등 영향으로 영상·공연·음반 분야 투자 꾸준하나 일회성 프로젝트 성격이 다수
  - 특히 인공지능은 틱톡을 비롯해 글로벌 유니콘들의 9.3%가 해당하는 4대 분야 이나 국내 유니콘\*들은 이커머스, 화장품 등 분야에 집중된 양상

\* '20.9월 신규 투자유치로 유니콘 진입 예정인 쏘카(차량공유)를 포함해 총 12개사로, 이 중 이커머스(쿠팡, 위메프, 무신사) 및 화장품(L&P코스메틱, GP클럽) 분야에 5개사 분포

**국내 인공지능 분야 벤처투자 및 주요국 비교**

<국내 인공지능 벤처투자 추이>

구분	'17	'18
총 벤처투자액(억원)	23,803	34,249
인공지능 분야 벤처투자액(억원)	408	1,369
인공지능 분야 벤처투자 비중(%)	1.7	4.0

<'18년 韓·美·中 벤처투자 규모 상대비교>

구분	GDP	총 벤처투자	인공지능 분야 벤처투자
한국	1	1	1
미국	12.7	43.6	65.7
중국	8.3	23.5	57.5

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('19.1), WorldBank, Pitchbook, Chinadaily, Crunchbase, ETRI('19) 재인용

**글로벌 유니콘의 분야별 분포**



자료 : CBInsights('20.9)

# 국제금융시장 9월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  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5월 이후 약세를 지속하였던 달러화의 강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위안화 강세,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강세 시현
- ◆ **(금리, 주가)** 미 국채 장기금리는 전월대비 변동성 감소를 보인 반면, 선진국 증시는 각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독립적인 시세변동 시현

□ **(환율) 달러화 가치는 미국 주가 하락,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, 원/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약 1,170원으로 하락**

- 달러 인덱스\*는 중순 이후 미국 기술주 가격조정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, 유로화 약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상승
  - \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  -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공식화의 영향이 약화된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
  - 5월 이후 경제회복기금 합의 등으로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는 코로나19 재확산, 재봉쇄에 따른 경기회복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
- 엔화는 스가 신임 총리 취임으로 아베노믹스(엔화 약세)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
- 유로화는 유럽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, 유로화 강세에 대한 ECB 관계자의 발언 등으로 약세 전환
  - 10일 라가르드 ECB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은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, 환율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

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8월말	'20.9월말	전월대비
달러 인덱스	96.140	96.479	92.170	93.849	+1.82%
엔/달러	109.61	108.66	105.91	105.45	△0.43%
달러/유로	1.1456	1.1219	1.1936	1.1720	△1.81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- 원/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 동조, 수출 개선,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1,158원 까지 하락 후 반등하여 1,170원선 부근에서 등락

- 위안화 강세의 주요 동인은 ①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국 경제, ② WGBI\* 편입 이슈 등
- \* 세계국채지수(World Government Bond Index)란 미국, 영국, 일본, 프랑스 등 20개국 이상의 선진국 국채가 편입된 글로벌 채권지수로 런던증권거래소의 지수 관련 자회사 FTSE 러셀이 관리
- 8월 중국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지표가 호조를 보였으며, 24일 중국 국채의 WGBI 편입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전망
- 9월 수출이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9일 발행된 외평채 발행금리(달러화 1.198%, 유로화  $\Delta 0.059\%$ )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개선

원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8월말	'20.9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	1,115.7	1,156.4	1,187.8	1,169.5	$\Delta 1.54\%$
원/엔	1,017.9	1,064.2	1,121.1	1,108.5	$\Delta 1.12\%$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월 초순 급락과 급등을 보인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중순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세

- 미국 나스닥 기술주 가격 폭락(3~4일)에 따른 주식시장 이탈 자금의 국채시장 유입으로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가 5일 미국 8월 고용지표 발표(실업률 급락)에 급반등
- 9월 FOMC(15~16일)의 '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방침이 당분간 통화정책의 현저한 기초변화는 없을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장기금리의 변동성 감소\*
- \* 8월 변동폭 24.53bp (0.5069~0.7522) > 9월 변동폭 8.33bp (0.6347~0.7180)
- 월 후반 소폭 등락은 유럽 등 코로나19 재확산 동향, 미국 추가 재정부양책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

□ (주가) 선진국 증시는 전세계적인 동조성 없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독립적인 행보

- 미국 증시는 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전월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한 반면, 유럽 증시는 월 중반에 급락하였고 일본 증시는 월중 급등락 반복
- 월 중순 미국은 정보기술주 매도(하락), 유럽은 M&A 가속화(상승), 월 하순 미국은 양호한 주택시장지표(상승), 유럽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(하락) 등 엇갈린 시세 시현

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

		'18년말	'19년말	'20.8월말	'20.9월말	전월대비
금리 (%)	미국채 10y	2.6842	1.9175	0.7048	0.6840	$\Delta 2.08bp$
	독일채 10y	0.2420	-0.1850	-0.3970	-0.5220	$\Delta 12.50bp$
	일본채 10y	0.0030	-0.0110	0.0510	0.0160	$\Delta 3.50bp$
주가 (pt)	다우존스	23,327.46	28,538.44	28,430.05	27,781.70	$\Delta 2.28\%$
	유로 Stoxx 50	3,001.42	3,745.15	3,272.51	3,193.61	$\Delta 2.41\%$
	Nikkei	20,014.77	23,656.62	23,139.76	23,185.12	+0.20%

자료 : Bloomberg

# 국제금융시장 10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 김 혜 진 (ghjkim@kdb.co.kr)  
 정 대 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(환율)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달러화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, 원/달러 환율은 전월의 하락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◆ (금리, 주가) 주요국의 추가적인 재정정책 실시 관련 소식이 시세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단기 뉴스에 따라 시세 등락이 반복되는 혼조세 전망

□ (환율) 달러화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며, 원/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 것으로 판단

○ 달러화 : 변동성 장세

- 달러화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, 추가 경기부양책 이슈 등으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
- 미 대선 1차 TV 토론 및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지지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,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실패 시 결과 불복 가능성을 시사
- \* 트럼프 대통령은 9.23일 우편투표 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연방 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

○ 엔화 : 보합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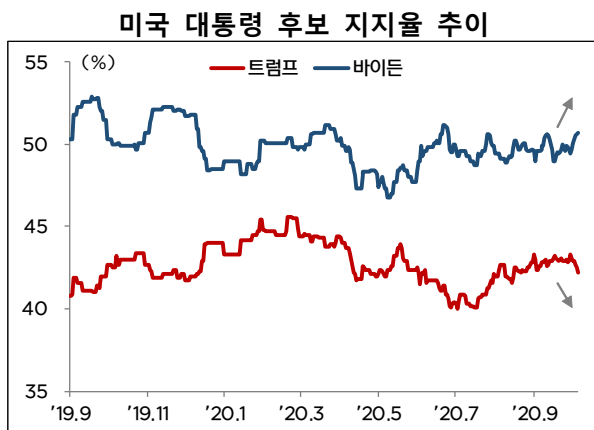
- 스가 총리의 아베노믹스 계승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제한적인 통화정책 여력,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
○ 유로화 : 약세 압력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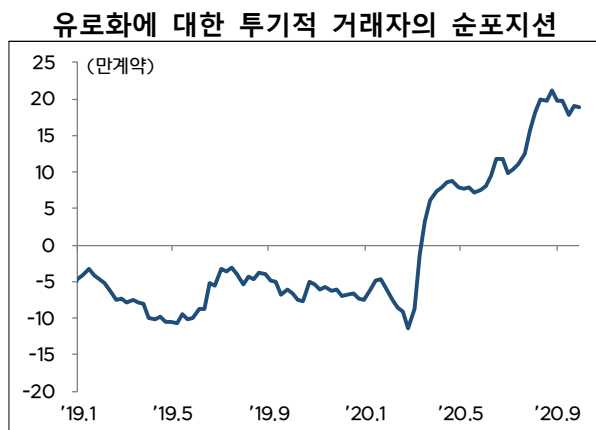
-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, 재봉쇄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, ECB 관계자의 유로화 강세에 대한 구두 개입 영향 지속 등으로 약세 압력이 우세할 전망
- 프랑스, 스페인 등에서 봉쇄조치가 재차 시행되었으며, 9월 유로존 서비스업 PMI는 기준선(50)을 하회하는 47.6을 기록
- 또한, 유로화에 대한 투기적 순포지션\*은 8월 하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
- \* CFTC(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)가 매주 발표하는 "비상업적(non-commercial, 투기적)" 거래자들의 순포지션 내역에 따르면 유로화에 대한 비상업적 순포지션은 8.25일 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

○ 원/달러 환율 :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

- 9월 원/달러 환율 하락의 주요인이었던 위안화 강세가 10월에도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
- 중국 국채의 WGBI 편입은 '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강세 요인이나, 단기적인 추가 강세 압력은 제한적일 것
- 또한,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음
- 대내적으로는, 9월의 수출 개선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어 지켜볼 필요
- 추석 연휴로 인한 10월 조업일수 감소,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 등 수출 회복에 비우호적 여건 예상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□ (금리, 주가) 미국과 유럽 등의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소식이 시세변동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○ 금리 : 9월에 줄어든 변동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 존재

- 연준의 적극적인 추가 개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부양책 실시 전망에 따라 전월보다 큰 변동폭 시현 가능

○ 주가 : 9월 조정 후 박스권 혼조세 전망

- 미국, 유럽의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, 미 대선의 불확실성,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, 3분기 기업실적 예상치 발표 등 단기 뉴스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

(담당자 : 환율 - 김혜진, 금리·주가 - 정대형)

## 최근 북한 소매상업의 현황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 
김영희 (kbukyh@kdb.co.kr)

- ◆ 유통방식은 정부공급에서 자유판매로, 고객 유치 등을 통한 이윤 창출 중심으로 전환 중
  - 백화점, 대형마트에 '고객 카드'를 비치하고 포인트 적립, 할인 판매 등 고객 맞춤형 전략 구사
- ◆ 향후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

### □ 국영상점을 통한 정부공급에서 백화점 등 자유판매로 전환

- 2002년 '7.1조치' 이전 북한 소매상업은 국영백화점·상점\*·직매점을 통한 주민 상품공급에 국한
  - 상업을 '주민에 대한 상품공급사업'으로 정의하고 기초식품 등 필수 의식(衣食)품은 소비기준에 따라 일괄공급
  - 가구, 가전, 사치품 등 필수 의식품 외 상품은 별도 주문을 받아 공급
  - \* 종합상점, 수산물상점, 남새(야채)상점, 과일상점, 고기상점, 식료상점, 건재상점 등을 각 지역에 설치
- '7.1조치' 이후 종합시장이 설립되었으며, 2010년대 들어 편의점, 온라인 쇼핑몰 등 새로운 형식의 상점과 백화점 등 현대적 상업망 구축
  - 옥류(2015), 만물상(2016), 은과산(2017), 앞날(2018) 등 전자상점, 황금별상점 등 편의점(2014) 등장
  - 보통강백화점(2011), 보통문거리상점(2012), 미래상점(2012), 창광상점(2015), 대성백화점(2019), 매봉산상점(2019) 등 신설

옥류(전자상점)



자료 : 통일신보 ('15.10.3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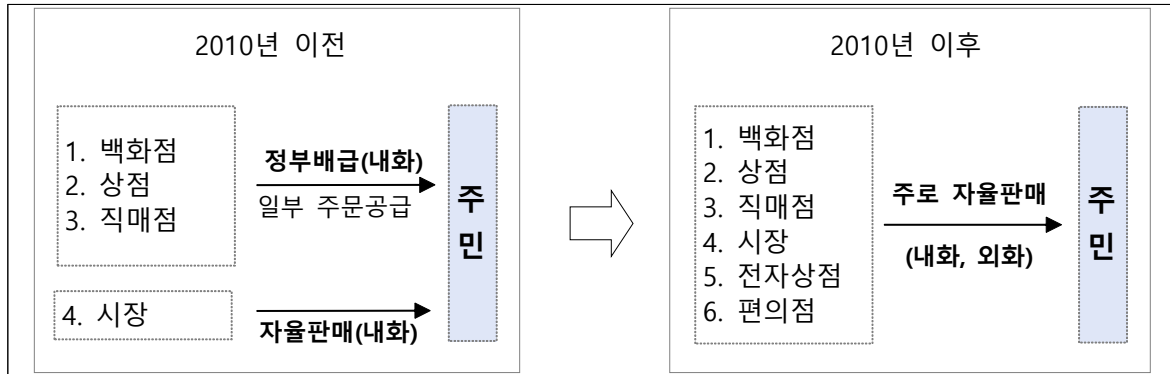
황금별상점(편의점)



자료 : 조선신보 ('15.1.19자)

- 구축된 대부분의 상업망은 수요자에게 자유판매(내화 또는 외화 결제)

2010년 전후 소매상업의 유통방식



자료 : 북한 언론 자료 등 참고하여 필자 작성

□ 소매상업의 경영목표는 고객 유치 등을 통한 이윤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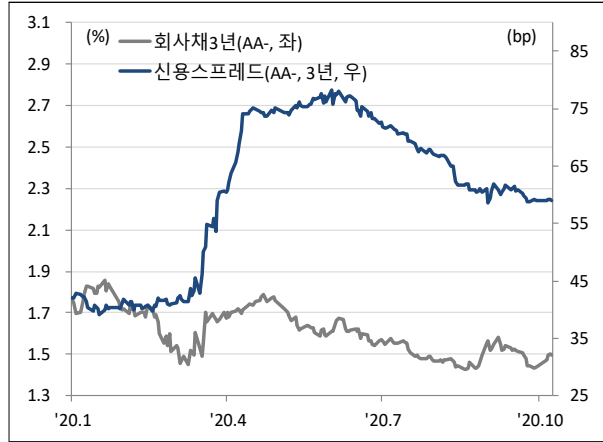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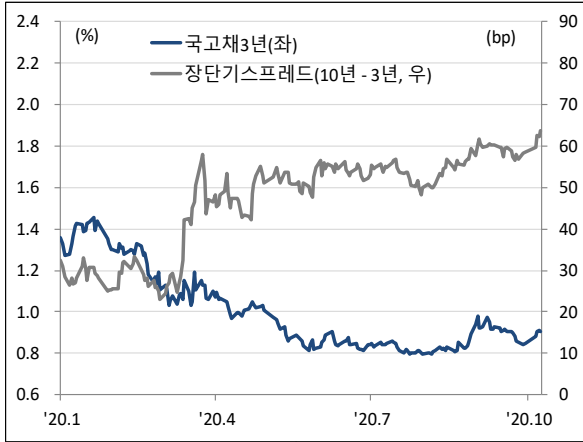
- 기존 소매상업은 상품공급을 통해 정부의 혜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윤 창출과는 무관
  - 구매자인 주민을 고객이 아닌 수혜자로 인식
- 유통방식의 변화로 인해 주민들을 고객으로 인식하며, 고객 편익을 우선하는 다양한 전략 구사 시도
  - 상업시설에 매장 외 식당, 노래방, 놀이방, 세탁소 등 편의시설 배치
  - 백화점, 대형상점에 '고객 카드'를 비치하고 상품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등을 제공하여 고객 유인
  - 일반인이 저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산상품을 판매하는 시장과 상점, 신형 부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가의 수입상품 등을 판매하는 '외화 전용 백화점' 등 고객의 구매력을 고려한 유통환경 마련

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경제변화는 시장경제 수용 가능성 제고 전망

- 고객 중심의 유통 변화가 고객 니즈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상품생산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여 결국 공급자 중심의 북한 경제가 수요자 중심의 경제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정부공급이 북한 사회의 평등과 주민결속을 위한 유인으로 작용해 왔으나, 유통방식의 변화로 사회주의 북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'평등' 개념 붕괴 초래
  -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 가능성 내포
- 이윤 창출에 주력하는 방향으로의 소매상업 행태 변화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

# 금리 · 환율 · 주가

**금 리** 국고채3년 0.907% (6.1bp ↑), 신용스프레드 58.9bp (0.1bp ↓)



**환 율** 원/달러 1,153.3원 (16.2원 ↓), 엔/달러 105.64엔 (0.32엔 ↑)



**주 가** 코스피 2,391.96pt (2.75% ↑), 코스닥지수 871.62pt (2.77% ↑)



\* ( 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#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98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**인터넷**            rd.kdb.co.kr, kdb.co.kr  
**문의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 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